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Original Article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기간 중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 스트레스 량의 관련성**

류혜검 

마산대학교 치위생과

Role·activity factors, ideal·value factors stress and stress amount relationship in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Received: May 06, 2020

Revised: June 01, 2020

Accepted: June 01, 2020

Hae-Gyum Ryu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Hae-Gyum Ryu,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Changwon, 51217, Korea. Tel : +82-55-230-1389, Fax : +82-55-230-1444, E-mail : ryu8102@masan.ac.kr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ole-activity factors, ideal-value factors stress and stress amount relationship in clinical practi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te in this study were 231 dental hygiene department student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ugust 24 to September 30, 2018,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1040460-A-2018-036). The collected data were compared and analyzed using a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factors affecting the amount of stress were investigated. Role and activity factors stress in case of too much assignment, repeat simple and funtional work, ideal and value factors stress in case of utilized as a subsidiary work practice institution rather than clinical practice, lake of awareness that the training institution is a trainee. **Conclusions:** School institution and departments form organic relationships with industries. Uniform training guidance for each training institution does not help with diversity or creativity and problem-solving skills. It gives some autonomy to the training guidance of training institutions, also a clear standard for the contents of the training. we need a system that can provide and evaluate basic guidelines for what students can do in clinical practice.

Key Words: Clinical practice, Dental hygiene students, Ideal·value factors, Role·activity factors, Stress, Subjective perception,

색인: 스트레스,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임상실습, 주관적 인식, 치위생과 학생

서론

치위생(학)과 교육과정 중에 임상실습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대학에서 배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치과 의료기관에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내용을 관찰하고 때로는 보조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는, 전반적인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과정이다[1].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래 치과위생사로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적 판단과 대인관계의 이해를 학생 스스로 현장경험을 통해 전문치과위생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2]. 그러나 학생들 개개인이 경험하는 임상실습은 치과 의료기관의 유형, 환경, 실습생의 역할에 따라서 실습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다[3]. 임상실습지에 대한 배치는 학생들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은 관계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치과 의료기관이 채택되는 경향이 많다. 임상실습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부각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도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반면 실제 임상실습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불안, 피로감, 스트레스는 학생들에게 임상실습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때로는 임상실습 기간 중에 실습이나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만들기도 한다. 낮은 치과의료 환경과 스텝, 치과의사의 진료스타일,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의 차이 등 수많은 이유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4], 이는 학생들에게 실습에 대한 혼란과 두려움, 역할 모호성, 직업에 대한 회의 등 부정적인 경험을 겪게 함으로써 임상실습과정 중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상황이다[5].

임상실습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박 등[6]은 일부 지역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수행 빈도, 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김[7]의 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홍 등[8]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신체화 경향에 관한 연구, 박[9]의 임상실습에 따른 만족도와 스트레스 요인 등 다수의 임상실습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 대부분 실습환경, 대인관계형성, 모호한 역할,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로 구분되어 있으며[5], 실습환경요인이나 대인관계 형성요인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역할·활동요인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에 대한 구체화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임상현장에서 접목시켜 보는 과정으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전공을 통한 미래 직업에 대한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임상실습은 전공과 미래 직업에 대한 더 나은 동기부여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치과 의료기관 마다 실습생에게 부여되는 역할이나 활동에 대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전공에 대한 비전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기간 중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 스트레스 량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학생이 실습기간에 수행하는 역할·활동요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00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1040460-A-2018-036)을 받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경남지역 M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과게시판에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고한 후 이에 동의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2018년 8월 24일부터 9월 30일 까지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서면동의서에 서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

에 자기기입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최종분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표본의 크기는 G*power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 유의수준 0.05, 독립변수를 10개로 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표본의 크기는 172명 이었고, 중도 탈락율을 고려하여 231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임상실습 기간 중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설문은 김과 정[10], 류[11]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실정에 맞게 수정·보완 하였으며, 스트레스 량 측정도구는 Frank와 Zizanski[12]가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간단한 심리학적 도구 BEPSI(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설문지를 개발하였고, 배 등[13]의 연구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BEPSI-K의 설문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은 3문항으로 학년, 전공에 대한 만족, 실습횟수로 구성되었고, 임상실습의 주관적 인식은 7문항으로 실습지역, 병원유형, 실습분위기, 치과위생사와 관계, 실습만족 여부, 친절한 실습지도, 성취감 여부이며 삼분변수로 구성되었다. 역할·활동요인 스트레스는 10문항으로 세부내용은 실습과 무관한 심부름, 단순하고 기능적인 일 반복, 간호조무사와 업무 구분 불분명, 실습시간에 할 일 없음, 이론 및 기술부족, 상황별 다양한 진료경험하기 어려움, 진료실에서 실습생 평가, 업무수행 시 잦은 실수, 환자가 진료와 연관된 질문, 과제의 양이 많은 경우로 구성되었다.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는 6문항으로 세부내용은 현장실습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차이, 다양한 임상경험의 한계, 학습위주보다 실습기관의 업무모조, 실습학생이라는 인식부족, 치과위생사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알고 있는 지식이 실제 적용 안됨의 경우로 구성되었다.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심하게 느낀다'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역할·활동요인 스트레스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0.856$ 이고,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0.744$ 이다.

BEPSI-K의 스트레스 량은 5문항으로 지난 한달 동안의 생활에서 좌절을 느낀 경험, 기본적인 요구에 대한 미충족,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 일들이 많아 중요한 일을 잊는 경험으로 구성되었으며, BEPSI-K의 스트레스 량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0.721$ 이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20.0 통계프로그램(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alpha=0.05$ 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을 평가하기 위한 첨도와 왜도의 모든 절대값이 2 또는 3을 넘지 않으므로 정규성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의 주관적 인식,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는 빈도분석과 백분율 및 기술통계 하였다. 임상실습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는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검증하였다. BEPSI-K의 스트레스 량과 변수들 간의 상관성은 Pearson correlation,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년은 '2학년' 51.9%로 '3학년' 48.1%보다 다소 많았고, 전공만족도는 '만족' 56.3%로 '불만족' 6.9%, '보통' 36.8%보다 많았다. 임상실습 횟수는 '2회 이하' 51.5%로 '3회 이상' 48.5%보다 다소 많이 조사되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Characteristics	Division	N(%)
Grade	2	120(51.9)
	3	111(48.1)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16 (6.9)
	Average	85(36.8)
	Satisfaction	130(56.3)
Number of clinical practice	2≥	119(51.5)
	3≤	112(48.5)
Total		231(100.0)

2. 임상실습의 주관적 인식

임상실습의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면 실습지역은 '창원'이 45.9%로 '부산' 13.4%, '그 외 경남지역' 40.7%보다 많았고, 병원유형은 '치과의원' 64.5%로 '대학병원' 16.9%, '치과병원' 18.6%보다 많았다. 실습분위기는 '좋음' 71.9%로 '나쁨' 4.8%, '보통' 23.4%보다 많았고, 치과위생사와 관계는 '좋음' 66.7%로 '보통' 30.7%, '나쁨' 2.6%보다 많았고, 실습만족 여부는 '만족' 64.1%로 '불만족' 10.8%, '보통' 25.1%보다 많았고, 친절한 실습지도는 '그렇다' 77.9%로 '아니다' 6.5%, '보통' 15.6%보다 많았으며, 성취감 여부는 '많다' 77.9%로 '아니다' 6.5%, '보통' 15.6%보다 많이 조사되었다<Table 2>.

3. 역할·활동요인 스트레스 정도

연구대상자의 역할·활동요인 스트레스 분석결과 '단순하고 기능적인 일 반복' 2.34점, '업무수행 시 잦은 실수' 2.26점, '본인의 이론 및 기술부족' 2.22, '상황별 다양한 진료에 대한 경험 부재' 2.16점으로 전체평균 2.06점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Table 3>.

4.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 정도

연구대상자의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 분석결과 '임상실습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차이' 2.56점, '임상실습보다 실습기관의 업무보조내용' 2.42점, '다양하게 임상을 배우는 것에 대한 한계' 2.33점으로 전체평균 2.26점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Table 4>.

Table 2. Subjective perception of clinical practice

Characteristics	Division	N(%)
Practice area	Changwon area	106(45.9)
	Busan area	31(13.4)
	Other areas	94(40.7)
Practice institution type	University hospital	39(16.9)
	Dental hospital	43(18.6)
	Dental clinic	149(64.5)
Practice atmosphere	Bad	11(4.8)
	Average	54(23.4)
	Good	166(71.9)
Relationship with dental hygienist	Bad	6(2.6)
	Average	71(30.7)
	Good	154(66.7)
Practice satisfaction state	Dissatisfaction	25(10.8)
	Average	58(25.1)
	Satisfaction	148(64.1)
Friendly practice guidance	No	15(6.5)
	Average	36(15.6)
	Yes	180(77.9)
Achievement state	No	15(6.5)
	Average	36(15.6)
	Yes	180(77.9)
Total		231(100.0)

Table 3. Role·activity factors stress level

Division	Mean±SD
Errands not relate to practice	1.83±1.02
Repeat simple and functional work	2.34±1.03
The division between nursing assistance and work unclear	1.75±1.04
Boring practice period	1.85±0.93
Lake of your theory and skills	2.22±1.02
No experience in various treatment by situation	2.16±1.05
Assessment of trainees in the clinic	2.06±1.08
Frequent mistake when performing work	2.26±0.90
Patient inquiries related to care	2.12±0.86
Too much assignment	2.04±1.00
Average	2.06±0.66

Table 4. Ideal-value factors stress level

Division	Mean±SD
Difference between clinical practice and knowledge learned at school	2.56±0.86
Clinically diverse learning limitations	2.33±1.11
Utilized as a subsidiary work practice institution rather than clinical practice	2.42±0.95
Lake of awareness that the training institution is a trainee	2.06±0.92
There is no clear division for dental hygienist work	1.94±0.94
Knowing knowledge does not apply clinically	2.25±1.66
Average	2.26±0.73

5. 임상실습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 분석결과 역할·활동요인 스트레스는 실습지역($p<0.05$)의 경우 ‘창원’과 ‘부산’의 집단에 비해 ‘그 외 경남지역’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실습분위기($p<0.001$)의 경우 ‘좋음’ 집단에 비해 ‘보통’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실습만족 여부($p<0.001$)의 경우 ‘만족’ 집단에 비해 ‘불만’, ‘보통’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친절한 실습지도($p<0.001$)의 경우 ‘그렇다’ 집단에 비해 ‘그렇지 않다’, ‘보통’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성취감 여부($p<0.001$)의 경우 ‘많다’ 집단에 비해 ‘적다’, ‘보통’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는 실습만족 여부($p<0.001$)에서 ‘보통’, ‘만족’ 집단에 비해 ‘불만’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친절한 실습지도($p<0.001$)에서 ‘보통’, ‘그렇다’ 집단에 비해 ‘그렇지 않다’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Scheffe test의 사후검증결과 집단별 $p<0.05$ 수준의 평균 차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활동요인 스트레스의 경우 치과위생사와 관계($p<0.001$)에서,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의 경우 실습분위기($p<0.05$), 치과위생사와 관계($p<0.05$), 성취감 여부($p<0.001$)에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able 5>.

Table 5. Role-activity factors, ideal-value factors stress according to subjective perception of clinical practice
Unit :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Role and activity factors stress	Ideal and value factors stress
Practice area	Changwon area	2.03±0.63 ^{ab}	2.26±0.78
	Busan area	1.83±0.69 ^a	2.01±0.70
	Other areas	2.18±0.66 ^b	2.34±0.68
	F/p*	3.594/0.029	2.345/0.098
Practice institution type	University hospital	2.15±0.62	2.21±0.69
	Dental hospital	1.96±0.60	2.23±0.96
	Dental clinic	2.07±0.68	2.28±0.67
	F/p*	0.842/0.432	0.182/0.834
Practice atmosphere	Bad	2.30±0.46 ^{ab}	2.32±0.78
	Average	2.38±0.61 ^a	2.48±0.61
	Good	1.95±0.65 ^b	2.19±0.76
	F/p*	10.585/0.001	3.290/0.039
Relationship with dental hygienist	Bad	1.98±0.31	2.25±0.58
	Average	2.39±0.57	2.45±0.65
	Good	1.91±0.65	2.17±0.76
	F/p*	14.578/0.001	3.602/0.029
Practice satisfaction state	Dissatisfaction	2.54±0.53 ^a	2.59±0.68 ^a
	Average	2.30±0.62 ^a	2.45±0.64 ^{ab}
	Satisfaction	1.89±0.62 ^b	2.13±0.74 ^b
	F/p*	17.812/0.001	7.301/0.001
Friendly practice guidance	No	2.59±0.36 ^a	2.79±0.47 ^a
	Average	2.46±0.47 ^a	2.57±0.59 ^{ab}
	Yes	1.94±0.66 ^b	2.15±0.74 ^b
	F/p*	16.319/0.001	9.718/0.001
Achievement state	No	2.56±0.55 ^a	2.51±0.74
	Average	2.33±0.61 ^a	2.52±0.62
	Yes	1.92±0.63 ^b	2.15±0.74
	F/p*	14.190/0.001	6.486/0.002

*by one-way ANOVA

^{a,b}by post hoc Scheffe test mean with sam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6.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

스트레스 량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명목변수를 제외한 상관관계분석결과 스트레스 량과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p<0.01$)를 보였고, 실습분위기, 치과위생사와 관계, 실습만족 여부, 친절한 실습지도, 성취감 여부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p<0.01$)를 보였다<Table 6>.

Table 6. The correlation of variables

	x1	x2	x3	x4	x5	x6	x7	x8
x1	1							
x2	0.475**	1						
x3	0.385**	0.665**	1					
x4	-0.325**	-0.353**	-0.255**	1				
x5	-0.298**	-0.364**	-0.271**	0.741**	1			
x6	-0.373**	-0.407**	-0.312**	0.741**	0.668**	1		
x7	-0.318**	-0.386**	-0.295**	0.696**	0.669**	0.714**	1	
x8	-0.350**	-0.354**	-0.264**	0.494**	0.445**	0.584**	0.426**	1

x1: Stress amount, x2: Average of role·activity factors stress, x3: Average of ideal·value factors stress, x4: Practice atmosphere, x5: Relationship with dental hygienist, x6: Practice satisfaction state, x7: Friendly practice guidance, x8: Achievement state

** $p<0.01$,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7.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스트레스 량의 변량을 각 28.8%과 18.8%설명하고 있으며,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Durbin-Watson은 각 1.808과 1.871로 기준 값인 2에 근접하고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역할·활동요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과제의 양이 너무 많은($\beta=0.273$)경우, 단순하고 기능적인 일의 반복($\beta=0.243$)인 경우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7. The factor affecting of stress amounts as role and activity factors stress

Division	B	S.E	β	T	p^*	Tolerance
Invariable	0.419	0.167		2.512	0.013	
Errands not relate to practice	0.112	0.062	0.134	1.814	0.071	0.569
Repeat simple and functional work	0.201	0.057	0.243	3.501	0.001	0.642
The division between nursing assistance and work unclear	-0.078	0.055	-0.095	-1.417	0.158	0.690
Boring practice period	-0.027	0.065	-0.030	-0.420	0.675	0.617
Lake of your theory and skills	-0.104	0.077	-0.124	-1.357	0.176	0.371
No experience in various treatment by situation	0.088	0.062	0.108	1.428	0.155	0.537
Assessment of trainees in the clinic	0.108	0.062	0.136	1.748	0.082	0.510
Frequent mistake when performing work	0.017	0.076	0.018	0.228	0.820	0.477
Patient inquiries related to care	0.086	0.067	0.086	1.269	0.206	0.674
Too much assignment	0.235	0.060	0.273	3.936	<0.001	0.643

$R^2=0.319$, Adjusted $R^2=0.288$, $F=10.311$, $p=0.001$, Durbin-Watson=1.808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상실습보다 실습기관 업무보조의 내용($\beta=0.266$)인 경우, 실습기관은 실습학생이라는 인식부족($\beta=0.242$)인 경우로 나타났다<Table 8>.

Table 8. The factor affecting of stress amounts as ideal and value factors stress

Division	B	S.E	β	T	p^*	Tolerance
Invariable	0.844	0.180		4.690	<0.001	
Difference between clinical practice and knowledge learned at school	-0.095	0.069	-0.096	-1.372	0.171	0.720
Clinically diverse learning limitations	0.056	0.058	0.072	0.966	0.335	0.638
Utilized as a subsidiary work practice institution rather than clinical practice	0.240	0.076	0.266	3.134	0.002	0.491
Lack of awareness that the training institution is a trainee	0.226	0.075	0.242	3.028	0.003	0.553
There is no clear division for dental hygienist work	-0.015	0.067	-0.017	-0.227	0.821	0.662
Knowing knowledge does not apply clinically	0.020	0.032	0.038	0.612	0.541	0.896

$R^2=0.210$, Adjusted $R^2=0.188$, $F=9.902$, $p=0.001$, Durbin-Watson=1.871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기간 중 경험하는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량의 관련성을 알아보려고 실시되었다.

임상실습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 분석결과 실습지역에서 ‘창원’과 ‘부산’의 집단에 비해 ‘그 외 경남지역’의 집단에서 역할·활동요인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 보건의료 기관 소재지 및 종류별 활동 보건의료인력 수에 의하면 부산의 인구 백만명 당 치과위생사 수가 치과병원은 66명, 치과의원은 364.8명에 비해 경남지역의 경우 치과병원 89.8명, 치과의원 498.4명이라고 하였다[14]. 통계청 자료만 보면 인구 백만명 당 경남지역의 치과위생사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수가 포함된 수치이다. 2018년 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 지역별 의료기관현황으로 치과(병)의원이 부산광역시 1,224개, 창원시 309개, 그 외 경남지역 839개이다[15].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과진료비가 많이 지출되거나 중요한 치과치료의 경우 대도시나 큰 병원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역할·활동요인 스트레스정도 조사에서 세부항목으로 반복된 단순하고 기능적인 일의 반복이나 상황별 다양한 진료에 대한 경험 부재에 대한 점수가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장[16]의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하게 되는 경우 기본진료영역에 대한 실습의 반복이나 다양한 진료전문분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경우 역할·활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연구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실습생이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진료영역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 기관의 선별기준과 실습지도지침에 대한 기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실습만족도가 불만의 경우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9]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민[17]의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을수록 비판적 사고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는 본 연구결과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장 등[5]의 연구에서도 역할·활동요인 스트레스는 만족도에 영

향을 준다고 하였다. 실습에 대한 만족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성향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교기관은 실습지 선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실습기관의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로 일괄성 있는 실습메뉴얼과 실습지침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공통된 실습내용을 제공하여 복불복이라는 인식 없이 만족스런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박[9]은 역할·활동요인 스트레스가 클수록 이상·가치요인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고,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성취감 여부가 적은 경우 역할·활동요인 스트레스가 높았고, 친절한 실습지도가 아닌 경우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가 높았다. 임상실습 시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은 임상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원인이 되며, 심할 경우에는 실습중도 포기나 학업포기에까지 이를 수 있다[4]고 하였다. 특히 미래 치과위생사로서의 모호한 역할이나 비전이 느껴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치위생과 학생이 임상실습에서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할·활동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실습지도자인 치과위생사들은 학생들이 전문직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범된 자세가 필요하겠다.

스트레스 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역할·활동요인 스트레스의 세부항목으로 과제의 양이 너무 많은 ($\beta=0.273$) 경우, 단순하고 기능적인 일의 반복($\beta=0.243$)인 경우로 조사되었다. 과제의 양이 너무 많은 경우는 박[9]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단순하고 기능적인 일의 반복은 김[1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의 세부항목으로 임상실습보다 실습기관의 업무보조내용($\beta=0.266$)인 경우, 실습기관은 실습학생이라는 인식부족($\beta=0.242$)의 경우 스트레스 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보다 실습기관의 업무보조내용은 전 등[19]의 연구에서 실습생의 모호한 역할에 의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본 연구결과와 의미가 비슷하다 또한 본 연구의 역할·활동요인 스트레스 세부항목으로 단순하고 기능적인 일의 반복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 여겨진다. 실습기관은 실습학생이라는 인식부족은 박[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임상실습은 대부분 방학기간에 이루어지며 치위생(학)과에 재학기간 중 3회 이상 임상실습을 하고 있다. 임상실습 기간 중 학생들은 매일 실습일지를 작성해야 하고, 대학별로 적당한 과제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생들은 3회 이상의 실습을 매회 다른 치과의료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그리고 실습기관의 실습지도 형태에 따라서 과제부여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제가 많이 부여되는 실습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의 경우 과제에 대한 부담을 많이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생들은 실습기관에서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나 관찰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스텝 부족에 의한 일손의 개념으로 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학과는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실습기관마다 확실적인 실습지도는 실습의 다양성이나 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에 대한 자율성을 일부 부여하면서 또한 실습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임상실습 시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제시하고 차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임상실습 시 학생들이 경험하는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비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일부 지역과 학생에 국한된 연구결과로 이를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는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지 수정 및 보완과 전국규모의 치과의료기관 유형별로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

본 연구는 경남지역 M대학교 치위생과 학생으로 2018년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231명을 대상으로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기간 중 역할·활동요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 스트레스량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학생이 실습기간에 수행하는 역할·활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실습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역할·활동요인 스트레스는 실습지역이 그 외 경남지역 인 경우($p<0.05$), 실습분위기가 보통인 경우($p<0.001$), 실습만족여부가 불만이거나 보통인 경우($p<0.001$), 친절한 실습지도에서 그렇지 않다 이거나 보통인 경우($p<0.001$), 성취감 여부에서 없다와 보통인 경우($p<0.001$) 역할·활동요인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임상실습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는 실습만족 여부에서 불만인 경우($p<0.001$), 친절한 실습지도에서 그렇지 않다면 경우($p<0.001$)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역할·활동요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과제의 양이 너무 많은 경우, 단순하고 기능적인 일의 반복인 경우로 나타났다.

4. 이상·가치요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상실습보다 실습 기관의 업무보조 내용인 경우, 실습기관은 실습학생이라는 인식부족의 경우로 나타났다.

학교와 학과는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실습기관마다 확실적인 실습지도는 실습의 다양성이나 창의성 및 문제해결능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에 대한 자율성을 일부 부여하면서 또한 실습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임상실습 시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 지침을 제시하고, 차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1] Shim HS, Lee HN. Stress and coping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s. J Korean Soc Dent Hyg 2014;14(2):139-45. <https://doi.org/10.13065/jksdh.2014.14.02.139>
- [2] Yoo JH, Kim JH.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stress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16;16(1):62-9. <https://doi.org/10.17135/jdhs.201616162>
- [3] Ryu HG. Releva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and its physical environmental and interpersonal factors in clinical practice institutions. J Korean Soc Dent Hyg 2019;19(5):791-802.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67>
- [4] Lee HN, Kim EM. Anxiety and fatigue related to dental practices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4;14(2):131-7. <https://doi.org/10.13065/jksdh.2014.14.02.131>
- [5] Jang SY, Kwon SB, Yang SK. A study on the stress of dental hygienists and students hygienists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by medical center type. J Dent Hyg Sci 2012;12(6):682-8.

- [6] Park YN, Yoon SO, Lee GH. The study of stress, satisfaction and the frequency of performing of dental hygiene students to clinical train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14(9):359-67. <https://doi.org/10.14400/JDC.2016.14.9.359>
- [7] Kim SG. Study on critical think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9;19(6):1037-46. <https://doi.org/10.13065/jksdh.20190089>
- [8] Hong JM, Han JH, Kim HJ, Ahn YS. A study on th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and somatization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09;9(2):219-24.
- [9] Park MY.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stress factor of clinical practice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Dent Hyg Sci* 2006;6(4):243-9.
- [10] Kim SK, Jung YS.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during clinical practices and stress coping styles. *J Korean Soc Dent Hyg* 2010;10(5):887-95.
- [11] Ryu HG. Survey o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and campus life stress of th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2017;5:864-80. <https://doi.org/10.15205/kschs.20170930908>
- [12] Frank SH, Zyzanski SJ. Stress in the clinical setting: the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J Fam Pract* 1988;26:533-9.
- [13] Bae JM, Jeong EK, Yoo TW, Huh BY, Kim CH. A quick measurement of stress in outpatient clinic setting. *J Korean Acad Fam Med* 1992;13:809-20.
- [14] Naver[Internet].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cited 2020 Apr 02].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wsearch/search.jsp>.
- [15]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yearbook 2018: 200-2.
- [16] Jang GW. A study on the contents and activities of clinical practice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Doctoral dissertation]. Jinju: Univ. of Gyeongsang National, 2005.
- [17] Min HH. Influencing factors of stress in clinical practi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7;17(1):39-47. <https://doi.org/10.13065/jksdh.2017.17.01.39>
- [18] Kim YN. A study on the stress factors that dental hygiene students experi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Kyungbok University Thesis Collection* 2000;4:373-91.
- [19] Chun JY, Lee HO, Kim J. The effect of self-expression on stress with clinical dental practice among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Dent Hyg Sci* 2007;7(2):89-96.